

AUTHOR 안계경

TITLE 개혁주의 예배의 아름다움

IN 월간고신

134호 (11, 1992): 92-98.

135호 (12, 1992): 58-63.

136호 (1, 1993): 6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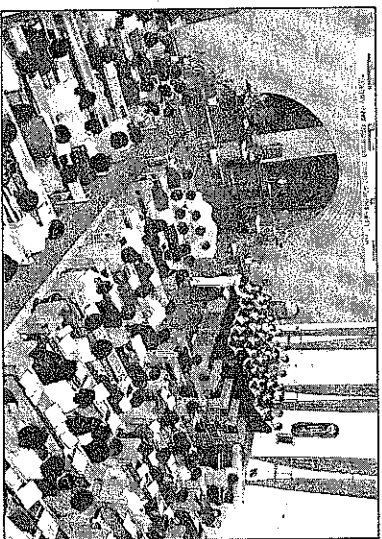
137호 (2, 1993): 47-49.

139호 (4, 1993): 32-35.

제 1 장

개혁주의 예배의 아름다움

/이 글은 개혁주의 예배에 관한 것으로서 G. Van Doorn의 /글을 서문로교회 안재경 강도사가 번역한 것입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 개제를 예정이오니 독자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안 재 경 / 서문로 교회 강도사

한국 교회

는 예배에 대한 히 큰 비중을 두 고 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부를 받았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그러나 개혁적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띠고 있는 바 예배의 원리와 순서에 대한 신화적인 표리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 이런 모습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각 그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는 시사시대의 모습과 흡사하다.

"The Beauty of Reformed Liturgy"란 책은 장로교단과 신화적으로 제일 가까운 개혁교단의 예배원리와 순서를 잘 소개하고 있다. 개혁교단은 오랫동안 예배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예배의 원리에 의거한 순서에 일치를 보았다.

저자인 도른(G. Van Doorn)은 캐나다 개혁신교회의 목사이며, 그 교단의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수년간 가르쳐 왔다. 저자는 개혁주의 예배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언약'의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교신 교단도 통일성과 자유함이 잘 조화된 아름다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논의하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 의

구약성경(헬리어 번역 혹은 70인 역)의 "Leiturgia"라는 동사에 기원을 두고 있는 "예배(liturgy)"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된 말이다. 좀 더 특별한 의미에서 이 말은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봉사, 즉 제사장과 제위인들의 "봉사(Service)"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래서 이 말이 우리가 종종 "공예배(public worship)"라고 부르는 분명한 개념이 되었다.

우리가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즉 일반적인 것과 보다 특별한 것의 의미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의 날은 직분자들의 모든 시역이 직분의 중심 의미를 받 견하는 날이다. 동시에 이 날은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결과적으로 주일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누리는 삼 의 중심이다. 이것은 시편 42, 84, 122편, 그리고 다른 수많은 구절들에

서 대단히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이여! 시냇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민군의 여호와여! 주의 정막이 아찌 그대 사랑스런 은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시모하여 쇠망하여."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거' 할 때에 내가 기뻐 하였도다."

이런 열정적인 외침은 구약시대의 외침이지만, 신약 교회도 이런 열정적인 소망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구약예배의 성취가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2장2절에서 우리는 시내산(구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이루어진 곳)에 이를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탁월성을 증거한다. 또한 이 표현은 매 주간의 첫째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과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각성시킨다. 신약교회가 모일 때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 우리는 천사들과 더불어 동일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게 된다.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가운데 속해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는 가장 은혜로우시지만 또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

다.

레이븐(Robert G. Rayburn)은 최근 출판된 그의 책 "O Come, Let Us Worship"("무주제 : Corporate Worship in the Evangelical Church - 성경문화사에서 "예배학"이란 제목으로 번역하였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그러나 비참하게도 이 예배는 오늘날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가장 무시되는 활동 중의 하나이다." 그의 이러한 경향이 '예배학'이란 책을 쓰도록 만들었다. 이 책에서 그는 성경이 우리 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개혁주의 예배"의 "정의"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븐의 책에 관해 더 이상 말할 여유가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 태도가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와 부분에서 우리를 지배해야 할 것이다.

레이븐은 "복음주의" 교회들, 즉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성경의 기초 위에서 오직 은혜로 인하여 죄인이 구원된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들에게 쓰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사탄의 구원과 그들의 경험들이 중심위치를 차지할 위험이 있다. 또한 예배의 각각 그리고 모든 요소를 - 설교 뿐만 아니라 찬양, 기도, 죄의 고백,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태도 - 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

무런 근거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예배의 모든 요소를 논의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어떤 순서를 가져야 하는지도 논의하고자 한다.

나는 이번 "비참한 소홀"이 개혁교회 - 원래 개혁교회는 회헌에서 시작되었다. 지금도 회헌에는 개혁교회라 번역될 수 있는 세 개의 교단이 있다. 하나는 '개혁교회'라는 이전의 국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개혁교회'라는 교단이 있고, 세 번째로 '자유 개혁교회'라는 교단이 있다. 이 '자유 개혁교회'에 대한 수교장문회 교신교단과 저매관계를 맺고 있는 교단이다. 이 '자유 개혁교회'와 같은 신앙교백을 하는 교단으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 '개혁교회들'이라는 교단들이 있다(역주). -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

교회에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는가? 예배의 각 부분에 우리는 상상할 참여하는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경외감으로 가득차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인용한 히브리서 12장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삼길찌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여러분은 "상한 심령과 화개하는 영으로" 교회에 참여하는가? "개혁주의" 예배의식이 배타적인 모임으로 굳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설교자가 어떤 종류의 설교를 하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 결과 설교자의 매끄러운 말씀에만 기거고 예배를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히브리서 10장25절은 "함께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배는 함께 모이는 것이 이상이다. 예배는 주님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것이다. 개혁주의 예배가 그렇게도 아니다. 이유는 이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개혁주의"라는 말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보자. 우리가 '개혁주의 예배'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예배가 다른 예배들과 구별된 독특한 성격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예배들을 언급하고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 예배가 특별한 관점을 가진 두 "구단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자 한다.

한쪽 구단에는 로마교회의 예배가 있다. 여기서는 "그릇된 우상숭배"인 미사(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30. 주일은 주의 민천과 로마교회의 미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다. - 개혁교회가 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문서들은 벨직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다. 개혁교회는 교목이나 설교의 효용성을 위해 매 주일에 해당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정해 놓고 있다. - 역주) 중

우리는 이 두 구단들 사이에서 있다. 하나는 시제만이 활동적이고, 다른 하나는 회중만이 활동적이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예배의 특수한 본질, 성격, 그리고 형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적"이다.

십이며, 회중이나 평신도는 실제로 수동적이다. 이 교회에는 신자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주교나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사제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하며 제단에서 비참하게 움직인다.

다른 구단에는 다양한 형태의 독립 교회들이 있다. 이 교회들은 특별한 직분이 없는 개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회중"만이 있을 뿐이다. 각 구성원은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고 있다. 누구나 예배에 참가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신-우순절주의의 금성장과 더불어 이런 식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개혁주의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런 형태의 예배에 호감을 가지는 것 같다. 개혁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개혁교회는 너무 제도화 되었어요. 회중의 참여가 거의 없어요. 교회봉수만 해도 그래요. 개혁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신앙을 자발적으로 표현할 여지를 주지 않아요. 봉수나 예배는 단지 한 사람(?)

의 일인 것 같지요.”

그들은 초대 기독교회의 예를 들면서 성도들이 모든 예배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우리는 이 두 구간들 사이에 서 있다. 하나는 사제만이 활동적이고, 다른 하나는 회중만이 활동적이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예배의 특수한 본질, 성격, 그리고 형태가 무엇인 것?

한 마디로 말하면 “언약적”이다. “모든 언약들에는 두 부분이 있다.” 덧붙여 말한다면, “모든 언약에는 두 편이 있다.” 이 ‘부분’과 ‘편’은 동일한 말이다. 언약에서 “편(part)”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부분(part)”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우리가 말하는) 예배에 “기여하시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표현들의 의미는 더 엄밀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우선, 이 언약의 “당사자들”은 신분이 동등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의 상호 “기여”도 동일한 종류나 범주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하는 관계가 있다. 즉 은혜언약은 쌍무적(bilateral)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 나타난 이 언약의 기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testament)”, 즉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물이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반면에 우리는 죄인이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 언약을 계속 유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 편무적(unilateral)이며, 항상 일방적인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받는 쪽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 줄 뿐이다.

이런 축복된 언약관계 속에 상호교통이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요소들이 있고, 둘째는 찬양과 기도과 헌금 등과 같이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부터 나오는 요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같이 의식하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즉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 우리는 기록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믿음으로 응답한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찬양한다. 이것이 개혁주의 예배이다. 어느 교회든지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바란다.

제기되는 질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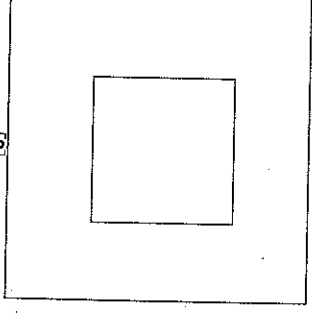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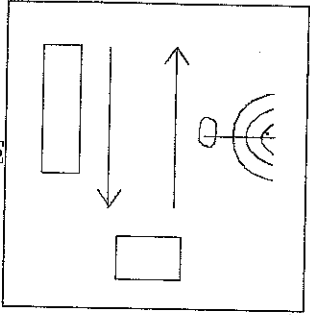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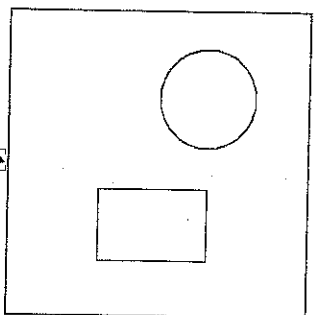
위에서 이미 언급한 몇 가지 비평들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보자.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노드라마

(단지 한 사람이만 등장해서 모든 것을 다해 버리는 연극·역지극)가 아닌 것? 예배에서 직분자들의 기능이 정 확히 무엇인가? 회중의 참여가 증진 되고 강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 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설교의 방법 대신에 “대화”라는 양식을 더 많이 도입하면 안되는가? 신자들은 오 순절 이후로 상속해져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식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을가? 우리의 예배는 그들에게 거처져야 하는 결핍들이 아닌가? 우리는 문을 닫아 놓는 대신에 그 문을 활짝 열어야 하지 않는가?

이와같은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인 원리들을 잘 알아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구속사(하나님께서서 역사를 통해 잠정적으로 구원을 성취해 오셨다는 관점·역사적)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구약 교회가 아니다. 먼저 구약교회가 있었으며, 우리교회는 구약교회의 성취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세하게 계시하신 예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철상적인 예배 형태

모세는 다양한 상징들로 장식된 그릇들, 제단, 기구들과 사용될 재료를 뿐만 아니라 성소에 대한 상세한 설 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성전 뿐만 아니라 성소도 하나님의 건축물이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세한 부분들은 오실 구속주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세아 C. E. 필리핀 선교대회 기행

우상숭배로 복음을 외면했던 필리핀에 다시 복음을

김 정 령

아시아 기독교장년연맹에서는 교육부 주관 아래 "아시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란 주제로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 수도 마닐라 케손지방 NCCU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선교 대회장인 NCCU교회(담임목사 칸초레(GANCHOR))는 케손시의 중심가 이틀다운 정원 속에 우복 세

위진 교회로 부근에는 케손 시청, 필리핀 국립대학, 필리핀 과학고등학교, 수도중앙의료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속에 호화로운 주택과 짙은 편지촌의 빈민주택, 무단주거인 움막들이 뒤섞여 살고 있어 이 나라가 '빈민국, 빈익빈'의 나라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필리핀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된 목적은 필리핀 선교를 중심으로 아시아 선교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선교전략, 필리핀 선교를 위한 지원 방법 및 탐색, 현지 교단 선교사를 통하여 필리핀 선교의 구체적인 현지 시역 보고 및 전망, 아시아의 선교를 위한 세미나 등이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 2/3가 살고 있으며 그 중 필리핀은 3%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선교의 활동여장이랄 수 있다.

필리핀은 나라 전체가 총 7,109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며 그 중 90%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다. 60%가 이를 없는 섬들로 지진,

백성들에게 나이가신다.

제사장 직무의 나머지 빈은 반바편 화살표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백성을 의미한다. 제사장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릴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향단 위에 향을 태울 때도 마찬가지다. 제사장들은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준 양식이었다. 히브리 사신은 이 양식이 호렐산 꼭대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 그런데 이 성소가 하늘의 양식을 본 땅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수평적'인(수평적이란 말은 수직적이란 말과 대조되어 사용된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성소의 직무를 삼취하시고 하늘성소에 오르신 후에는 수평적이고 분리된 세 부분이 아니라 평과 하늘이 연결되어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역사주) 성소였다. 은혜의 보좌는 땅 위에 서 있었다.

이 하늘의 양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언급해보자. 우선 모든 목적, 모든 행동, 제사를, 향단 등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 사실 이것은 "연약적인" 양식이었다. 두 "편",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있었다. 또한 두 "부분", 즉 하나님이 자기 거룩한 백성을 위해 행하신 것 뿐만 아니라 제사들과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스리엘의 반응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준비적인

“그렇지”였다. — 계속 —

출애굽기 25장4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삼가 이 산에서 너게 보인 식양대로 할찌니라." 이 "식양"은 우선 전체모사의 성소를 가리킨다. 즉 성소가 세워져야 하는 방식, 또는 각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방식 등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그 전체 구조는 대강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회중에게 열려 있었던 앞 뜰에(번호 1) 있었던 주요한 물건들은 모두 명이라고 알려진 썼는 대야와 제사가 드러진 번제단이였다.

중간 부분(번호 2)은 제사장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진설병이 놓여지는 떡상과 등대가 있었다. 지성소가 숨겨져 있는 휘장의 바로 앞에는 향단이 적당한 위치에 놓여져 있었다. 이 향단은 은혜의 보좌에 드러지는 기도를 상징한다.

지성소(번호 3)에는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번씩 피를 뿌리는 무경이 덮여진 법제가 있었다. 수많은 준비를 하고 난 후에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일 년에 한 번 이 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법제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른다.

기운대 부분(번호4)의 두 화살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들의 직무가 이중적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위의 화살표는 자기 백성에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묘사한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이루어진다(민수기6:24-26). 또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개혁주의 예배의 아름다움 II

히브리서 전체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성전"(2절)의 탁월성을

선포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림자를 성취하시고 실제의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곳에서 그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안재경
서문로교회 강도사

이

브리서 8장 5절은 출애굽기 25장 40절을 인용하고 있다. "저희(구약의 제사장들)가 삼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며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기린사대 '삼가 모든 것을 신에서 내게 보이면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성소는 구약시대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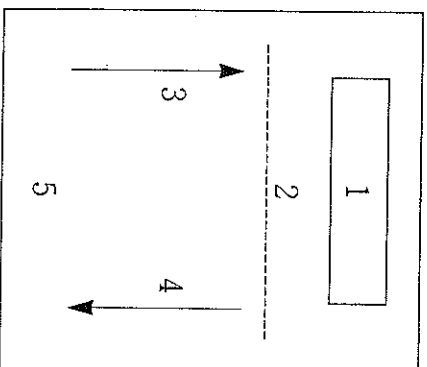
새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6절). 히브리서 전체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성전"(2절)의 탁월성을 선포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림자를 성취하시고 실제의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곳에서 그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4, 16).

완전한 제사를 드리므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히브리서 8장 등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수행적인 성소를 폐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버림 받으시고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 더 이상 무거운 휘장에 의해 분리된 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성소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아래 그림은 신약 "성소"가 더 이상 수행적이 아니라 '수직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모세가 세운 성소는 여러가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 수직적인



"양식"은 텅텅 비어 있다. 실교단 앞에 제단과 법제가 없으며, 다른 물건

들과 기구들도 아예 없다. 그러나 사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가득차 있다! 이 "양식"은 구물을 통과해 예수 그리스도가 삼키고 계시는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 즉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도달한다(원호 1).

절선(원호 2)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기린위 보이지 않게 하였다"(행 1:9)라는 말처럼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을 보지는 못한다"(히 2:8)라는 사실을 기린킨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아간다고 말한다. 우리는 열려진 하늘 아래에 살고 있다. 휘장은 찢어졌다!

우리(원호 5)는 아직까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방"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려와 교회를 가득 채웠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보혜사이며, 성령은 땅 위에 계신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이 모든 것은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를 만나는 주의 날에 영광스러운 살체가 된다.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함께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 앉아 있다"(골 2:6). 히브리서 12장을 통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 모든 영광스러운 표현들은 예배의식을 통해 사실이 되고 실재가 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새 땅에서는 성전과 교회건물이 더 이상 필요없을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때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우리는 그곳에 “나아간다.”

이 수직의 성소에서 두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여전히 언약의 “쌍방교통”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발하실 때 이것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이다.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회중이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친송하고, 감시의 헌금을 드릴 때 등이다.

예배의 인도자인 목사는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이 수직적인 예배에서 몇몇 요소들이 목사에 의해 중보되도록 하겠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또한 목사는 우리 일출의 제사의 우리의 기도를 은혜의 보좌함에 드릴 때 성도들의 입이 뜨기도 한다. 앞으로 논의할 것이지만 몇몇 교회들의 경우에서처럼 목사가 신조를 암송할 때도(원래는 회중이 암송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는 또한 회중의 입이 된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아직 내려오지 아니한 동안에는 성소의 제사장처럼 하늘은 이레로(번호 4), 하늘은 위로(번호 3), 즉 두 방향으로

로 중보하는 직분이 계속해서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혹은 언약적인 예배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리본어를 통해 두 가지 요소를 구분해 보자.

a parte Dei(하나님 편 혹은 하나님 쪽)의 요소가 있다. 여기에는 1. 축복 선언 2. 십계명(오전) 3. 성경읽기 4. 말씀의 선포 등이 있다.

다른 요소는 a parte homini(사람 편 혹은 사람 쪽)이다. 여기에는 1. 하나님을 부를(votum) 2. 신조(오후) 3. 기도들 4. 봉헌 5.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등이 있다.

물론 상례도 있다.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성례, 특별히 성찬은 “쌍방”교통이다. 설교에도 쌍방 교통이 있으며, 있어야만 한다. “말씀을 듣는 것”은 모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다. 성도들의 이러한 활동은 사제들과 제단, 그리고 다른 모든 구약적인 요소들을 폐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도들은 “회해의 사역”이 전달되는 장소인 설교단을 중심으로 두게 된다. 앞에서 그린 그림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교한 로마 성당과 비교해 볼 때 개혁주의 예배는 가장 아름답다고 과감히 주장할 수 있다.

이제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과 적합한 순서를 논의하므로 이 아름다움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예배 순서의 일리들

개혁주의 예배 순서의 다양한 “요소”들은 논의하기 전에 우선 전체(조화롭고 아름다운 전체)로서의 “공예배”를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신조들의 내용과 가능한 한 가까운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자료들이 주일의 예배에 대해 적당한 순서를 제 공하는지 알아 보자.

첫째로 기도의 형식들이 있다. 첫 번째 기도(찬양철 475, 476페이지)가 회교회는 ‘찬양집’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편에 곡을 붙인 시편찬송 뿐만 아니라 기도의 형식들과 기도문들이 나와 있다 - 역사주는 “죄의 일반적인 고백과 살교 전의 기도”라고 되어 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결합된 것이다. 원래 개회사 후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와 더불어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것과 구분된 것으로 “이제 당신의 종의 일을 열어주소사...”라는 말로 시작되는 설교 비문 직전의 간단한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의 일체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기도와 더불어 성경의 공적인 봉독과 설교가 따라 온다. 두번째 기도(476-480 페이지)는 (오전 설교 후에 사용하기 위한) “기독교의 모든 필요들을 위한 기도”라고 불리운다. “오전 설교 후에”라는 말의 배후에는 이 기도를 설교 앞에 넣으려는 다양한 “심리적” 유혹들이 있었

음을 말한다.

찬양집에는 두번째 “죄의 공적인 고백과 설교 이전의 기도”(480페이지 이하), 또한 교리문답 설명 전과 후에 하는 기도들도 있다. 후자는 오전의 “첫번째 설교”와 구별하여 오후 예배의 교리문답설교(개혁교회는 주일이 오전과 오후 두 번의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두 예배는 성격이 좀 다르다. 오후예배 때는 특별히 ‘교리문답설교’라는 것이 있다. 이 설교의 성격은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역자 주) 때 하는 기도들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기도들(들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곱 가지이다)은 비록 불안정하지만 양쪽 예배(오전예배와 오후예배)를 위한 일관적인 경본이 된다. 이 경본의 완성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38 주일(제 103문답)의 고백에 동의할 때 지동적으로 나올 것이다(문 103. 제 47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④ 첫째로,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교육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회에 열심히 출석할 것과 특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석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구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 나쁜 것을 행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생에서 영원한 인식을 시작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47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103

문답은 예배 순서의 네 가지 "부분"을 언급한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2. 성례를 시행하는 것,
3. 하나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것,
4. 자비의 헌금을 하는 것.

이 순서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예배의 순서를 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루르시누스와 몇몇 사람들이 작성한 교리문답의 설명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말하면서 이 순서를 강조했다. 이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이다.

공적인 지모들, 기도들, 그리고 교리문답을 결합해 보면 성경의 공적인 의기와 설교사이에게 기도, 봉헌, 찬양과 같은 것들을 끼어 넣어서는 안된다. 이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충고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딤후 4:13)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죄의 공적인 고백은 예배의 처음에 와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종보의 기도와 자비의 헌금은 설교 다음에 와야 한다. 또한 말씀이 먼저 오고 성례가 뒤에 오는 "말씀과 성례"가 적합한 순서이다.

이 순서는 "지동적으로" 환란 개혁교회기 1978년 김편 총회에 의해 채택한 예배순서와 똑같다. 이 순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좋은 예이다.

개혁주의 예배순서

"개혁주의"라는 단어는 우선 역사적인 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종교 개혁이대로 사용되어져 온 말이다. 혹 우리가 예배순서를 바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른다면 순서를 바꾼다 해도 그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이러의 예배순서는 단지 "폭력"이다. 우리는 각 요소를 더 자세히 고려하여 "실"을 붙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 순서는 오전예배의 순서이다 (물론 오후예배도 논의할 것이지만). 셋째로, 다양한 요소들은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두 그룹으로 나뉜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요소(↓)와 목사를 통해 혹은 목사 없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소(↑)이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더 자세한 논의

다음 장에서 예배의 이러한 요소들과 적합한 순서를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성도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하지 않는가?" "찬양대는?" "누가 시도신경, 주기도, 이문을 읽어야 하는가?" 등이다. 때때로 우리의 개혁주의 순서를 다른 예배의 순서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공예배는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치품이 아니다.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더 강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요소들이 의식적으로 참여한다면 "예배로부터 훨씬

예배 순서

1. 개회
 - (↑) 하나님을 부를(시편 124:8)
 - (↓) 축복의 선언(고린도전서 1:3, 혹은 요한계시록 1:4, 5)
(주의, 수많은 교회에서 이것은 (↓)예배의 부를 뒤에 나온다.)
 - (↑) 찬양송
2. 죄의 공적인 고백
 - (↓) 십계명(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과 그 요약
 - (↑) 죄의 공적인 고백(비교, 기도의 첫번째 형식)
 - (↓) 용서하는 은혜의 선포
 - (↑) 감사의 찬송
3. 말씀의 봉사
 - (↑) 성경을 열기 위한 간단한 기도
 - (↓) 성경의 공적인 낭독
 - (↑) 축복을 위한 기도송
 - (↓) 설교
 - (↑) 회중에 의한 이문송
4. 성례집행
 - (주의, 이 부분은 선택적이다. 여기서 성례는 (↓)와 (↑) 두 그룹에 다 속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한다.)
 - (↓) (↑) 세례(필요시)
 - (↓) (↑) 성찬(가능한 한 자주)
5. 기도와 종보
 - (↑) 오전예배는 "기독교의 모든 필요를 위해"
 - (주의, 많은 교회에서는 (↑) "오리문답 설교이후의 기도"
6. 자비의 사역
 - (↑) "자비의 헌금을 하라"
 - (주의, 많은 교회에서는 (↑) 주님께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것)
7. 폐회
 - (↑) 미친 찬송
 - (↓) 축복선언(민수기 6:24-26 혹은 고린도후서 13:14)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단지 "실"을 들으며 가는 것이 아니다. 우

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밀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 **교주**

개 회

우리가 동일한 말을 계속 들을 때 그 의미가 결국 퇴색 되어지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주일마다 다른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제 경
서문로교회 강도사

예배의 개회와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 시작은 뒤따르는 모든 순서를 '조율'하는 것이다. 이 개회의식은 시편으로 암송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축복의 선언 이상이다. 예배가 시작되면 잘 준비해서 마음이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 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다. 스랍들은 그 분에게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진능하신 주 하나님이어!"(이사야 63:8)라고 노래한다.

종교개혁은 교회건물과 형상들에 대

한 모든 미신과 우상숭배를 정결케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살교를 잘 듣는 지기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우상 파괴는 더 많은 곳에 적용되었다. 교회건물은 더 단순할수록, 더 꾸밈이 없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살교를 들뜨자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1944년에 국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하판 개혁교회는 헛간, 학교 교실, 심지어 상점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사람들은 '성경적인 건축'에 관한 논문들을 쓰지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그곳

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가장 깊은 존경과 즐거운 기대감 —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나아 왔습니다" — 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 건물은 빈 껍데기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 오신다. 이 사실을 의식할 때만이 우리는 예배의 "개회"로부터 완전한 유익과 축복을 받게 된다.

세 가지와 세 가지

전통적으로 우리는 예배 개회시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름, 축복의 선언, 그리고 첫번째 시편 찬송이다. 이 요소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95:1)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세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번째 세 가지

예배는 회중들로부터 나오는(1)의 요소와 더불어 시작된다. 목사는 회중의 편에 서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시편 124:8)라고 말한다. 이 요소는 더 좋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해 두자.

이것은 좋은 표현이다! 첫째로, 우리는 불리는 벨기나부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하나님 이신 '주님'을, '이제'를, 그리고 '죽' 장들의 '하나님'을 부른다. 이것은 이미 언약적인 사건이기에 함께 만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외부인"이라고

부르는 방문자들(불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역자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만민의 이 성격 — 언약의 백성이 자기들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한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에 나온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 때문에 지상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더 잘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아버지이시다(시편103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아름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46:5).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게시',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도움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부름"은 목사가 회중들을 대신하여 말한다. 이 말을 온 회중이 같이 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개회시는 의장이 사회봉을 들고 회의를 개회하는 전통적인 형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배의 개회는 훨씬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을 부름"이 목사에 의해 말해지는 이유는 이 요소가 미사로부터 기원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성직자가 정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사제는 그의 실제적인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모든 종류의 예식들을 수행해야만 했다.

이 예식들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죄의 고백과 용서의 정화를 위한 기도였다. 이 기도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반면에 도우는 부시체가 "천지를 만든 자이신"이라고 응답한다. 우리 예배의 전통적인 시작은 여기서 기원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이러한 예배에 의 부들은 더 이상 "성직자"에게만 아니라 온 회중에게도 적용된다.

다음에는 "축복의 선언"이 있다. 이것은 (1) 요수인데, 예배에의 부름에서 표현된 우리의 고백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요수이다. 예배에의 부름과 인사말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복시는 '예배에의 부름' 동안에 회중에게로 그의 등을 돌리고 그의 얼굴을 돌이 자기 뒤에 있는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탄원 한다. 그 후에 등을 다시 돌려 회중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선언한다. "쌍방교통인 것이다"

예배의 마지막도 축복으로 끝난다. 이것은 우리가 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일주일 내내 진실한 신자들과 함께 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특별인사"이다.

이 예식들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죄의 고백과 용서의 정화를 위한 기도였다. 이 기도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반면에 도우는 부시체가 "천지를 만든 자이신"이라고 응답한다. 우리 예배의 전통적인 시작은 여기서 기원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이러한 예배에 의 부들은 더 이상 "성직자"에게만 아니라 온 회중에게도 적용된다.

다음에는 "축복의 선언"이 있다. 이것은 (1) 요수인데, 예배에의 부름에서 표현된 우리의 고백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요수이다. 예배에의 부름과 인사말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복시는 '예배에의 부름' 동안에 회중에게로 그의 등을 돌리고 그의 얼굴을 돌이 자기 뒤에 있는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탄원 한다. 그 후에 등을 다시 돌려 회중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선언한다. "쌍방교통인 것이다"

예배의 마지막도 축복으로 끝난다. 이것은 우리가 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일주일 내내 진실한 신자들과 함께 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특별인사"이다.

이 예식들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죄의 고백과 용서의 정화를 위한 기도였다. 이 기도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반면에 도우는 부시체가 "천지를 만든 자이신"이라고 응답한다. 우리 예배의 전통적인 시작은 여기서 기원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이러한 예배에 의 부들은 더 이상 "성직자"에게만 아니라 온 회중에게도 적용된다.

이들과 성경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이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선포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른다. 우리의 찬송은 구름을 뚫고 올라가 스랍들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라는 찬송과 함께 하나가 된다. 우리의 찬송은 바울처럼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코린도 전서 14:15).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세번째 요수는 '첫번째 시편 찬송'이다. 이 시편(혹은 찬송)은 목사 자신이 설교 할 본문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이 찬송이 설교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뛰어난 영광을 고백하는 찬양이어야 할 것이다. 시편에는 이런 찬송이 많이 있다. "우리는 아버지와

이들과 성경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이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선포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른다. 우리의 찬송은 구름을 뚫고 올라가 스랍들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라는 찬송과 함께 하나가 된다. 우리의 찬송은 바울처럼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코린도 전서 14:15).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두번째 세 가지 세 가지 요수가 더 언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장로석에서의 기도, 목사가 들어 올 때의 조용한 기도, 그리고 소위 "예배에의 부름"이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기도에 대해 부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오직 주께로만 향할 때 아름다운 것이 된다.

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다. 기도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서 계속되고 있는 요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목사와 장로가 약속하는 첫 번째의 요소는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종교개혁 후에 수많은 순회 설교자가 있었다. 이때 장로들이 그 목사와 밀히고 난 후에 약속을 하므로 회중이 그 설교자에 대해 인심하고 인정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필요없다(좀 다른 성격의 것이지만 요즘은 예배 전에 목사가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부 교회들이 있기도 하다(역사적)).

다음으로 목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 얼마동안 회중들이 "조용히 드리는 기도"가 있다. 이때 오르간도 연주되지 않는다(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 오르간이 연주되는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또한 같이 찬송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역사적)). 모든 회중은 머리를 숙여 기도한다. 이 기도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를 느끼는데, 이것을 맞았다고 해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나 자신을 위해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예배가 언약 회중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었다(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잠

잠은 피도록이면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보면서 천국에 들어가 구속 받은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 그리고 만물까지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연상하고, 그 천국의 예배를 지금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더욱 강력스럽게 될 것이다(역사적). 어쨌든 우리는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 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주일 아침 뿐만 아니라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할 기회가 많이 있다. 우리는 설교자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많은 기도로 간구 해야 한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도한다면 너무 늦은 것이다!

그러므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줄이기 보다는 (이 기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 모든 회중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과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조용히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를 좀 더 일찍, 좀 더 많이 해야 하겠다.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자도록 하자. 주일 아침에 몇 분 더 자겠다고 싸움을 하고, 옷과 신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온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주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약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인식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헨리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8주일).

"우리는 이 인식일을 여호와의 거룩하게 지킨다. 사람들이 합당하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면에 일상의 일을 처리한 후에는 자신들의 일, 말과 오락에 관한 생각에서 떠나 온 종일 거룩한 인식일을 지킬 뿐 아니라 공적이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필요한 의무와 공물을 베푸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8절).

마지막으로 "예배에의 부름"이 있다. 여러분들 중 "하나님과과의 만남에서 사람이 첫 번째 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은 정당해 보인다. 항상 주도권을 가지셨고, 지금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며, 영원히 주도권을 가질 분인 하나님께서 예배의 첫 번째 말을 하셔야 하지 않은가?

예배에의 부름

우리 예배의 "하나님을 부름"은 세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앞에서 살펴 보았다. 제 사정은 자신을 준비할 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말로 기도했다. 종교개혁은 이것을 폐지하고 회중의 임으로 이 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기 이전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을 부름"이라는 요소가 구약시대와 예배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요소였다고 주장한다.

목사는 하나님 편에서 모여 있는 회

중을 부른다. "우리 중 아무도 공적인 예배의 고귀하고 거룩한 경행을 하도록 완전하고 철저하게 준비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레이블의 책 174페이지). 고대로부터 사면에 서 예배에의 부름을 인용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왔다. 시편 노래집은 대단히 특별한 예배에의 부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부름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인용해 보자.

시편 92:1,2 여호와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함을 나타내심이 좋으니이다.

시편 100:1,2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신이 좋 너희는 알지어다.

시편 113:1,2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환영하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말들이다.

목사는 이 시작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용되었던 것이어야 한다. 예배의 시작 시에 말하는 이런 시편이 우리가 가장 불신 분의 면전에 나아오고 있다는 인식을 줌이 "나게 한다"던 그것으로 소임을 다한 것이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가 예배의 이 고대 개회사를 직접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23

비록 건강이 좋지 못했으나 1563년 초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건강은 악화되었고 기력은 쇠약해 갔다.

그가 친구 비레(vire)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1542년 곧 그의 나이 33세 때 벌써 시력이 악화 되고 있다는 언급이 있고, 말년에는 투통과 위장병이 심했고 무엇보다도 폐가 좋지 못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1564년 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해 2월6일에는 성 베드로성당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는 임종시까지 상한 몸을 가누며 여호수아서 주석을 집필하는 데 마지막 정열을 쏟았다.

그해 4월25일에는 이 땅에서의 날이 길지 않음을 예견하면서 유언을 남겼고 5월에는 오랜 개혁운동의 동료이자 칼변의 생애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던 피렐에게 편지를 썼는데, 5월2일자로 된 이 편지는 칼변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다. 이 편지에서 칼변은 피렐에게 마지막 날들을 함께 보내자고 부탁하였다.

칼변은 이 땅에서 55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1564년 5월 27일 베지의 풀 안에서 운명하였다. 이 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는 55년간 입고 있던 유채의 겉옷을 벗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임종시까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시편 38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옵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라"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튿날 그의 장례식은 겸손하게

치러졌고 그의 시신은 제네바 시내에 있는 플랑 팔리에 (plain-palais) 묘지에 안장되었다. 어떤 비문이나 묘표도 없이 평범하게 묻혔다. 이것은 칼변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세의 경우처럼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도록" 하였다.

사람이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무덤에까지 업적을 새겨 두겠는가? 단지 높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신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 이것은 칼변의 생의 목표이자, 그의 생애를 이끌어간 삶의 활화이었다.

그렇다면 칼변의 무덤이며 칼변의 묘표라는 J.C.가 새겨진 무덤은 무엇인가? 저명한 칼변 연구자인 두메르그에 의하면 그것은 기짜일 뿐, 관공업자들이 관공수임을 올리기 위해 만든 기묘(假墓)일 따름이라고 했다.

칼변의 임종을 지켜본 베지는 그가 쓴 칼변 전기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칼변의 생애를 16년간 옆에서 지켜 보았다. ... 그는 더 이상 참가할 수도, 더 이상 감할 수도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리고 칼변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 "제가 지는 그 날,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던 가장 큰 빛이 하늘로 돌아가고 말았다." 존 칼빈,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a minister of the word of God)였다. **칼빈**

개혁주의 예배 제3장

고백과 죄의 용서

모든 설교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실제로 용서된다는 것과 불신자들에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한다.

안 제 경

대구 서문로교회 강도사

안에서 제시한 공예배 순서에서 두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의롭게 되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가 남아 있다고 명백히 지적한다. 이브라함, 다윗, 이시야, 바울 등과 같은 사람들이 항상 가장 깊은 존경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가 필요한데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의식에서 이 부분은 거의 무시되어 버렸다. 카이퍼(A. Kuyper) 같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이 부분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종교개혁에 의해 편승화 된 방식대로 이 부분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부분에 속하지만, 예배의식에서 죄의 공적인 고백과 항상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부분에는 네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연인적인 예배의 쌍방교통을 잘 나타내 준다. 이 네 요소는 ① 십계명 ② 죄의 공적인 고백 ③ 용서의 선포 ④ 찬양과 감사의 노래 등이다. 각각의 요소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십계명(↓)

십계명은 두 번역본(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있다. 이것들을 교대로 낭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화에 잘 출석하는 것은 제 4계명에 충실하는 것인데 이 계명은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칠 때에 주일의 의미가 완전해진다. 출애굽기 20장은 주일을 지키는 이유·일곱번째 날에 대한 하나님의 모범·를 가르쳐 준다. 신명기 5장은 주일을 지키는 목적·하나님의 능하신 구속행위를 상기하기 위한 목적·을 덧붙인다.

사소한 것이지만 살펴볼 것이 있다. 첫째로, 출애굽기 20장 1절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리사대”라는 말을 낭독해야 하는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은 신명기 5장에서 이 구절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고대 문서를 낭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모세가 신명기 6장5절과 레위기 19장18절에서 십계명을 요약한 것과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실패하신 문문을 낭독할 수 있는나 하는 문제이다. 만약 이런 문문을 읽는다면 율법을 두 번 읽게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주장은 무의식적으로 주 예수를 비판하는 인상을 준다. 다양한 경우(마태복음 22장 뿐만 아니라 젊은 부자에게 말씀하

전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선물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큰 열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의존하고자 하는 우리의 각오를 표현해야 한다.

신 경위)에서 예수님은 십계명 중 몇 가지를 언급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너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했느냐?”라는 말을 덧붙이시므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다. 예수님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죽이지 아니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증오와 분노를 금하라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교회에서는 십계명의 한 두 계명이 부연 설명된 신약의 구절들을 목사가 낭독한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언약율법은 아니다. 어쨌든 십계명 전체를 낭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죄의 공적인 고백(↑)

최근에 살고 이전의 기도와 죄의 공적인 고백이 결합되므로 공예배에서 이 중요한 요소가 사라지게 되었다(한

국교회에서는 장문의 대표기도를 통해 자주), 회중이 예배에 더 깊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 회중에게 이런 기도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인화한 것을 사 용할 수도 있다. 주보에 간단한 고백 기도를 실어 온 회중이 묵사와 함께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양식이 때 주일마다 사 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때 주일마다 이렇게 한다면 지루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 의 거룩하신 뜻을 상기시켜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죄 뉘를 인정하 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

용서와 은혜의 선포(↓)

모든 설교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실제로 용서받았다는 것과, 불신 자들에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한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에 응답하여 상한 심령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 즉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확 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묵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용된 구절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묵사의 책임이며 권위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나든지 때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나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마태복음 16:19절).

이제 회중은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예배가 회화의 기초 위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에 교회는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찬양과 감사의 노래(↑)

예배의 다른 요소들처럼 묵사는 대단히 조심하면서 이 순간을 위한 찬양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찬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선물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큰 열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의존하고자 하는 우리의 각오를 표현해야 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리. 저가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되니”(시편 103편).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기쁨과 더불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웃고 있다!

잊혀졌고, 일부러 무시했던 예배의 이 부분이 적절하게 다시(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제 위치를 찾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다. **▶▶▶**

말씀의 봉사

우리는 예배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모든 다른 요소들은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 하나님과 만나는 이 중심점에 이르는 데 있다.

안 제 경

대구 서문로교회 강도사

공 예배의 세번째 부분은 설교에 관계된 부분이다. 여기서 설교에 대해 세밀하게 논할 수는 없다. 이 주제를 논하려면 그 자체로 한 권의 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예배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모든 다른 요소들은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 하나님과 만나는 이 중심점에 이르는 데 있다. 그러나 일 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에 빈 지리고 있다. 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개회와 죄의 공적인 고백도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는데(특히 이 두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지만) 여 기서는 또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의 봉사에

- 1. 설교 전의 간단한 기도(↑)
- 2. 공적인 성경봉독(↓)
- 3. 본문으로 인도하는 시편 찬송(↑)
- 4. 본문과 설교(↓)
- 5. 회중의 아멘(↑)

이 순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즉 설교 바로 전에 "설교 이전의 간단한 기도"를 넣기 좋아한다. 주어진 순서를 따라 다섯 가지 요소를 살펴보자.

설교 이전의 간단한 기도(↑)

이 기도는 간단해야 한다. 이 기도는 성경을 열기 위한 기도, 설교자의 입을 열기 위한 기도, 그리고 회중의

마음을 열기 위한 좋은 빌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도이다.

우리가 "이제 당신의 종의 입을 열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설교자가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은 뜻하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는 설교의 "준비"와 "전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준비라는 것은 설교자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설교문을 작성하고,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목사가 설교전에 무엇을 가지고 가든지 — 개 요, 간단한 주해, 혹은 아무 것도 안 가지고 —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

이제 그는 회중과 만난다. 설교자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준비한 설교를 "전달"한다. 여기서 비문소 쌍원공통이 일어난다. 이때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다. 장로는 예배 전에 목사를 위해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설교자가 연구하면서 준비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도록 말이다. 설교자가 자기 앞에 설교 원고 전부를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은혜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잘 준비했지만 자유롭게 전하기 위해 설교전에 올라가는 목사는 철저하게 이 기도를 할 필요를 느낄 것이다.

공적인 성경봉독(↓)

어떤 사람들은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봉독

이 인간 목사의 설교보다 더 권위 있다고 과도히 주장한다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경봉독과 설교의 이분화로 이끌려질 것이다. 그 결과 성경의 인용문이 올바른 설교이며, 나머지 설교자의 말은 성경의 인용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 밖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발전할 것이다(역주).

이것에 대한 몇몇 조리있는 표현을 보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기르치는 일에 착임하라" (딤후 4:13). 초대 교회는 예배 때마다 율법서를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었던 회당의 관습을 이어 받았다. 판 롱겐(G. van Rongen)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의 언약예배(Liturgy of God's covenant, pp. 23, 24)'에서 공예배의 이 가장 오래된 부분에 대해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다. 그가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 사이에 왜 기도가 심지어 헌금과 찬송이 끼어드는가?" 그는 누가복음 4장과 사도행전 13장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봉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설교가 있었다고 말한다.

바울의 사신을 더 정확하게 인용해 보자면 "공적인 성경(단수로 표현될) 봉독"이다. 그러므로 신약과 더불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포함하는 하나의 "성경"이다. 이 말씀은 언약의 율법, 언약을 지키라는 선지자의 설교, 옛 언약에 대체되는 새 모은 언약을 포함하는 언약의 말씀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언약예배를 드린면서 공적인 성경읽기에 크게 주의해야 하겠다.

이 성경읽기의 기원은 구약시대부터지만 구약시대의 방식처럼 1년 혹은 3년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가 자기기 살 교할 본문과 잘 조화되는 구절을 선택한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해서 적어도 두 구절이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예베르부터 (Van Zim Schone Dinsd)' 라는 책에서 관 통인 목사는 그 인용구절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신약구절은 구약구절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신약의 구절은 조심스럽게 선택되어야 한다. 본문이 구약의 구절로부터 선택되어졌다면, 신약의 구절을 먼저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본독은 선택한 본문으로 결론이나기 때문이다. 오후 예배에서는 그 주일에 해당되는 교리에 빛을 비추어 주는 본문을 적어도 세 구절을 선택해야 한다.

조심스러운 선택이 끝은 아니다. 본문을 선택했다면 조심스럽게 성경읽기를 준비해야 한다. 목사가 한 절을 잘 못 읽는다든지, 강조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실수를 하면 교인들이 듣는 데 큰 결핍들이 될 수 있다. 목사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여러 번, 그것은 크게 읽어야 한다. 본문은 하나씩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본문의 배경들을 향해 연속적으로 또한 힘있게 읽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게 할 때에 — 물론 좌석에 앉아 있는 회중들의 성경도 펼쳐질 것이다! —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이 새겨질 것이며, 축복이 될 것이다. 공적인 성경본독이 필요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설교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못할 것이다.

친송

성경읽기 후에 친송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교회에서 친송을 많이 불러야 한다. 시편 119편과 같은 노래를 보면 화중이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기 위한 열심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설교 이전에 간단한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본문과 설교 (↓) 그리고 (↑)!

성경읽기 동안에 읽은 본문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본문이 읽기와 더불어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의 반복, 특별히 읽기 후에 따라오는 노래는 시차스러운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설교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그 본문의 말씀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본문"이란 "절"만 되는 것은 아니다. 종종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본문은 구절이 된다. "본문 (text)"은 짜여진 단위라는 말을 의미하는 texturis는 말에서 나왔다. 성경의 전 본문에서 짜여진 본문이 다시 설교로 짜여져야 한다.

설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전적인 정의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

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신화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정의는 길게 늘어놓는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독백'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의 그룹사이에 의논이 오고 가는 '성경공부식의 대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

그러나 설교는 독백이 아니다! 설교의 상대편은 듣는다. 즉 "배운다." 이 말은 설교를 듣는 것이 "동사", 즉 여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목사는 눈과 마음이 집중하는 공간 속에서 "자유로운 전달"을 할려고 노력해야 한다. 목사는 회중적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을 경험한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설교는 설교자의 노력을 초월한다. 말씀은 성경의 증거를 필요로 한다. 말씀이 전하여질 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본문 성경만 뿐 이이다.

그러므로 교회건물은 성령이 일하시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남게 주의 종의 입을 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성경의 이 시역은 설교단과 회중적 사이에 영적인 교제를 형성해 준다. 목사는 벽에 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고 응답하는 마음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교-사건"은 (↓)요수와 (↑)요수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설교자와 회중의 동시 활동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회회가 들은 말씀이 저희가 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히 4:2). KJV(홍정역)은 "믿음을 섞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 "설교-사건"에서 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교가 전해질 때 믿음이 섞여져야 된다.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언약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언약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즐기는 것이다.

회중의 어떤(↑)

이 "어떤"이 없이는 말씀의 봉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개혁교단의 설교자들은 "어떤"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설교를 끝낸다. 어떤 교회에서는 회중이 함께 어떤으로 회답한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엄청난 경험이 된다!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설교를 했다. 이에 많은 목소리같은 어떤의 합창이 메세지를 받은 회중들로부터 그에게 돌아온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말하였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설교 후 친송 기사를 읽거나 광고하지 않더라도 설교자의 어떤 바로 후에 온 회중이 아멘송을 불러야 할 것이다. 이 아멘송은 설교에 대해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친송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사건"에 깊이 참여한다면 개혁주의 공예배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100%**